

내용분석을 통한 언론의 비브리오 보도사례 분석

우하중¹ · 김영규^{2*}

¹대구가톨릭대학교 외식산업학전공, ²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Content Analysis on the News Report Cases of Vibrio

Ha-Joong Woo¹, Young-Kyu Kim^{2*}

¹Major of Food Service Industry, Daegu Catholic University

²Department of Tourism,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determine the full extent of the negative media reports and to broaden public awareness through content analysis. Samples of this study are news reports on vibrio on three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such as MBC, KBS and SBS and three major national newspapers such as Chosun daily, Joongang daily and Donga daily in Korea for 5 years from January 1st in 2000 to December 31st in 2004. Total 628 cases were searched through from the web sites of fore mentioned TV and newspaper companies. It is highly advised to adhere to the proven fact as much as possible and full and thorough research on the outcome should be sought by media before they reach to the public.

Key Words : vibrio, content analysis, Media

1. 서 론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의 소득수준과 생활형태가 향상됨에 따라서 식생활의 변화도 다양화, 고급화 되고 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해지고 보다 더 좋은 음식문화를 갖으려는 욕망이 증가하고 있다(Kim 등 2003).

웰빙 바람과 로하스라는 새로운 트렌드는 현대인들에게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 등이 농약에 오염되거나, 질병에 감염 되었다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광우병이나,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브루셀라, 콜레라, 조류독감, 비브리오 등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사람에게도 전염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관련음식의 소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영향으로 생산의 기반이 흔들리고, 소비의 격감으로 가공, 유통 업체와 관광분야의 한 축인 외식관련업체는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생선협회회의 추정에 따르면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 발령 1회에 약 3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http:// www.whe100.org](http://www.whe100.org)),

국립보건원의 통계를 보더라도 연간 60~80명 정도가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되고 감염자의 40~60%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http://dis.cdc.go.kr/statistics/Statistics_Year_Death.asp). 특히 언론 등에서 도살 처분과 매립하는 장면 및 병원의 입원환자의 장면, 또는 환자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 관련업체는 뒷서리를 맞고, 소비자는 위축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 언론보도는 그 부정적 영향이 산업 내에도 전이되어 개별 기업에 대한 소비자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의 강도가 강할 경우에는 산업 내 개별기업이 받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Hah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식재료와 관련이 있는 수산물 중에서 비브리오에 관한 언론의 보도를 좀 더 객관적·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이러한 보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존 비브리오에 관련된 연구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균의 특성이나 방지 시스템 또는 예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부정적 언론보도를 내용분석 함으로서 이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관심을 밝히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미를 둘 수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 Young-Kyu Kim, Department of Tourism, Keimyung University, 1000 Shindangdong, Dalseogu, Daegu, Korea
Tel: 82-53-580-6405 E-mail: ykkim@kmu.ac.kr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KBS, MBC, SBS 등 3개 방송사와 발행 부수와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여 전국적인 여론수렴과 여론형성을 주도해가는 일간지라고 판단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의 신문에서 비브리오에 관한 보도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5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 동안이며, 각 언론사 해당 홈페이지에서 “비브리오”로 검색하였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 외 기사는 자료가 방대 하여 제외시켰다. 방송의 경우에는 기사의 내용이 있는 것만 수집하였고, 기사의 내용이 없거나 검색에서 기사내용이 없는 것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628건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이것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

비브리오와 관련하여 기존의 내용분석 관련 유사연구는 Shin(1997)의 연구가 유일하나 연구 대상을 식품관련 주요사건으로 국한하였으며, Oh 등(1999), Kim(1993), Kim 등(1986)의 연구와 같이 비브리오 균이나 예방, 방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브리오의 내용분석에 관련된 정해진 분석유목의 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유목체계 설정을 위해 기존 관광분야의 내용분석에 관한 선행연구(Kim & Kim 2003, Oh 2000, Oh & Kim 2000, Lee 1999)를 토대로 하여 연구 문제에 적합하게 분석유목을 선정하였다.

내용분석의 연구에서는 이미 개발된 분석유목을 연구목적에 맞게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석단위로는 코딩단위(coding units)와 문맥단위(context units)가 있다(Cha 1983). 코딩단위는 단어, 주제, 주장, 기사, 지면 량 등 개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석단위로 하는 것이며, 문맥단위는 메시지 속에 있는 내용과 문맥을 중심으로 분석단위를 삼는데, 본 연구는 코딩단위와 문맥단위를 함께 활용하

<Table 1> Category and its contents

Category	Contents
Media type	Broadcasting or newspapers
Media name	Name of media and comparison analysis
Year/month	Analysing outbreaking time of the year and month
News type	Analysis of news types / ref. from Kim & Kim(2003)
Appearance	Appearance of news on which section / ref. from Koh(1992)
Size of the news	Total number of characters & pages in the news
Relevance	News titles relativity to the Vibrio
Intensity	Level of intensity of the news contents
Direction	Analysis of news direction / ref from Lee(1991)
Source	Sources of the news
News character	Analysis of news character / ref from Lee(1999)

였다. 표집 된 기사는 Kim & Kim(2003)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Table 1> 과 같이 유목을 설정하였다.

3. 분석방법

분석의 유목설정과 기사의 내용분석은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도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얻고 분석유목에 대한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5년10월1일부터 10월14까지 2주간 현업에 종사하는 외식업 경영주 1명과 관광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 2명의 코더와 함께 분석대상 628건 중에서 체계적인 표집(systematic sampling)을 통하여 자료번호 1번을 시작번호로 하여 10개씩 건너뛰는 방법으로 63건의 기사를 선정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측정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정도의 차이나 추가 사항은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절충한 이후 측정하였으며,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검사하기 위해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는 코딩자간의 점수가 일치하는 항목을 계산하는 방법인 Holsti 신뢰계수법을 이용하여 96%의 타당성 점수를 얻었다. 따라서 나머지의 기사는 연구자가 단독 판단에 의해 분류하였다. 이때의 신뢰도는 같은 자료로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비슷한 결정이나 결론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유목별 신뢰도 계수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ext{신뢰계수(Reliability Coefficient)} = 3M / N1 + N2 + N3$$

* M = 3 명의 분석자간의 일치한 코딩 수 / N1 = 분석자 1이 코딩한 수

* N2 = 분석자 2가 코딩한 수 / N3 = 분석자 3이 코딩한 수

<Table 2> Reliability coefficient of each category

Category	Reliability Coefficient
Media type	1.00
Media name	1.00
Year/month	1.00
News type	1.00
Appearance	1.00
Size of the news	1.00
Relevance	0.95
Intensity	0.93
Direction	0.87
Source	0.92
News character	0.90
average coefficient	0.96

III. 결과 및 고찰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방송과 신문의 비브리오 보도기사에 대한 자료의 일반적 인 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1) 매체별 분석

2000~2004년 사이 5년 동안 비브리오 관련보도의 빈도를 분석해 본 결과 총628건 중 방송이 334건(54.8%)이며, 신문이 284건(45.2%) 이었다.

2) 언론사별 분석

언론사별로 분류한 경우는 KBS가 206건(32.8%), MBC가 54건(10.2%), SBS 74건(11.8%)이었고, 조선일보가 61건(9.7%), 중앙일보 115건(18.3%), 동아일보 108건(17.2%)이었다. 보도 빈도의 순으로는 KBS(32.8%), 중앙일보(18.2%), 동아일보 (17.2%)이며, SBS(11.8%), MBC(10.2%), 조선일보(9.7%)순으로 나타났다.

3) 년도 별 분석

년도 별 분류에서는 2000년도 87건, 2001년 170건, 2002년 144건 이고, 2003년 132건 2004년에 95건 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를 빈도순으로 보면 2001년 (27.1%), 2002년 (22.9%), 2003년 (21.0%)이었고, 2004년 (15.1%), 2000년 (13.9%) 순으로 분석이 되었다. 월별 분석에서는 1월 11건, 2월 6건, 3월 5건, 4월 34건, 5월 102건 이었고, 6월 112건, 7월 91건, 8월 88건 이었으며, 9월 119건, 10월 32건, 11월 8건, 12월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빈도순으로 보면 9월이 18.9%, 6월 17.8%, 5월 16.2%, 7월 14.5%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8월이 14.0%, 4월은 5.4%, 10월이 5.1%를 나타내고 있으며, 12월 3.2%, 1월 1.8% 11월 1.3%, 2월1.0%, 3월이 0.8% 순으로 분석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5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브리오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사람에게 감염되는 시기 또한, 여름철임을 말해주고 있다.

4) 기사유형에 관한 분석

기사유형의 경우에는 뉴스 609건, 칼럼 3건, 논단 1건, 기획/연재 8건, 사설 2건, 이었고, 시사해설 2건, 인터뷰 3건 등 이었다. 이를 빈도별로 분류 했을 때 뉴스가 총628건 중에서 609건 97.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 기획/연재가 1.3%이고, 칼럼과 인터뷰가 각각 0.5%, 사설과 시사해설이 각각 0.3%, 논단이 0.2%의 순으로 분류되었다. 비브리오의 경우에는 제3종 전염병에 올라있고 발생건수는 다른 전염병과 비교 했을 때 그 수는 적지만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신속히 전파 하기위해서 뉴스시간에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뉴스에 지나치게 편중 되어 있음으로 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거나 분석적으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5) 보도지면에 대한 분석

보도지면에 대한 분석은 정치면 15건(2.4%), 경제면 35

건(5.6%), 사회면 422건 (67.2%)로 나타났으며, 국제 9건 (1.4%), 과학 5건(0.8%), 문화/연예 23건(3.7%)이었으며, 생활/건강 66건(10.5%), 지역 39건(6.2%), 종합 10건 (1.6%)이었고, 브리핑과 NIE(소년조선)이 각각 2건 (0.3%)씩 으로 나타났다.

6) 기사크기 분석

기사의 크기는 A4 용지에 출력된 기사의 줄 수를 기준으로 했으며, 기사의 제목과 날짜는 기사의 크기에서 제외 하였다. 기사의 크기는 20줄 단위로 분류하였고, 000~020줄은 492건 으로 78.3%를 나타내었으며, 021~040줄은 104건 (16.6%)이고, 041~060줄은 18건 (2.9%) 이었다. 061~080줄과 081~100줄, 121~140줄이 각각 4건(0.6%) 이고, 101~120줄, 221~240줄이 각 1건 으로 0.2% 이었다.

7) 비브리오 관련성 여부에 관한 분석

분석자료 628건 중에서 기사의 내용이 비브리오와 관련이 있는 기사는 480건으로 76.4% 이었고, 기사의 내용이 비브리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즉 유사보도가 148건으로 23.6% 이었다.

8) 기사의 제목에 대한 분석

비브리오와 관련이 있는 480건의 기사 중에서 기사제목에 “비브리오” 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404건으로 84.2%이며, “비브리오” 라는 단어를 포함 하지 않은 것이 76건(15.8%)로 분석 되었다. 이는 언론에서 비브리 오 관련 보도를 할 때 기사의 내용은 물론이고 제목에 “비브리오” 라는 단어를 많이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9) 기사내용의 강도 분석

기사내용의 강도에서는 주의, 당부, 주의보 발령 이하는 저 강도로, 감염자 발생, 입원치료는 중 강도, 감염자의 사망소식은 고 강도로 분류 하였다. 저 강도가 202건으로 42.7%이며 중 강도가 75건으로 15.9%, 고 강도가 196건으로 41.4%를 나타내었다.

10) 기사의 방향 분석

Lee(1991)의 연구에서는 기사의 성향을 Good 뉴스, 중립적 뉴스, Bad 뉴스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긍정, 중립, 부정의 항목을 유목으로 설정하였다.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이 큰 쪽으로 분류하였다. 기사의 방향은 긍정적인 것이 35건으로 7.4%이며, 중립적인 것은 195건으로 41.2% 이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것은 243건으로 51.4% 이었다. 기사의 방향은 부정적 > 중립적 > 긍정적 순 이었

다. 이것은 비브리오 관련보도가 부정적인 방향의 기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1) 정보원천에 따른 분석

정보원은 기사가 쓰여 지는데 있어서 원천적인 정보를 제공한 곳을 말 한다. 특히 비브리오는 바다에서 생산하여 식탁에 올리는 식재료라는 점에서 관련된 곳이 많은 편이다.

빈도분석 결과 지자체 보건당국이 157건으로 33.3%이며, 국립보건원이 104건 으로 22.0%, 감염환자를 진료한 병원이 82건으로 17.4%이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35건(7.4%), 정보원이 불명확한 것이 26건으로 5.5% 이었다. 그 외에도 대학의 연구소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14건으로 3.0%였으며, 해양수산부는 12건으로 2.5%, 국립수산진흥원/과학원 및 유통업체가 각각 4건으로 0.8%씩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건으로 0.4% 로 분석이 되었다.

정보원은 국립보건원과 지자체 보건당국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12) 기사의 표현 방식 분석

기사의 표현방식은 사실적 248건(52.4%), 자극적 158건(33.4%), 전문적 24건 (5.1%), 통계적 23건(4.9%), 혐오적 17건(3.6%), 이였으며, 심층적 2건으로 0.4%, 그리고 분석적은 1건으로 0.2% 식이었다. 유목분류 시에는 선정적인 항목이 있었으나 실제분석 결과에는 1건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사의 표현방식은 사실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문적이고, 분석적이며, 심층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보도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기사의 표현방식에 따라서 독자와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는 사건의 강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활어와 어패류를 소비하는 경향도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표현방식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13) 기사의 성격 분석

기획기사 2건, 사실기사 432건, 분석기사 16건, 단신기사 22건 이며, 빈도수로 보면 사실기사가 91.5%, 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단신기사 4.7%, 분석기사 3.4%, 기획기사 0.4% 순이다. 기사성격 분석을 보면 사실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획이나 분석기사는 아주 적게 나타났다.

14) 감염자 연령 분석

감염자의 연령에서는 총 207건 중에서 41~50세가 66건으로 31.9%이며, 61~70세가 59건으로 28.5%, 51~60세가 36건으로 17.4%를 나타내고 있으며, 31~40세가 26건으로 12.6%, 71~80세가 16건으로 7.7%, 11~20세와 21~30 는 각각 2건으로 1.0%씩을 나타내었다.

15) 감염자 성별 분석

감염자의 성별은 총203건 가운데 남자가 14건(6.9%), 여자가 17건으로 8.4% 이였으며, 성별의 구분이 불가능한 것이 172건으로 84.7% 이었다. 이것은 기사내용에서 김 모 씨 또는 이 모 씨 등으로만 되어 있어서 성별에 대한 판별이 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 예를 들면 여성, 여인, 할머니, 여, 등 여성을 칭하는 대명사로 된 것은 여자로 구분하였고, 남성을 칭하는 대명사로 된 것은 남자로 분류하였다.

2. 매체별 기사의 특성분석

매체별 기사강도, 방향, 중심과 정보원의 이용형태, 표현방식, 기사성격과 유사보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해 매체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1) 매체별 기사 강도 분석

<Table 3 > Intensity analysis by media type

Media type		Level of intensity	Level of intensity			Total
			Low	Medium	High	
TV	Freq.	106	59	139	304	
	Tot %	22.4%	12.5%	29.4%	64.3%	
News paper	Freq.	96	16	57	169	
	Tot %	20.3%	3.4%	12.1%	35.7%	
Total	Freq.	202	75	196	473	
	Tot %	42.7%	15.9%	41.4%	100.0%	

$\chi^2 = 22.779, df = 2, p = 0.00$

(n = 473)

매체별 기사내용의 강도는 주의, 당부 및 주의보 발령 이하의 기사를 저강도, 감염자 발생 및 입원치료를 중강도, 감염자 사망 기사는 고강도로 분류 하였다. 매체별 기사 강도 분석결과 저강도 에서는 비슷하였으나 중강도 에서는 방송이12.5%로서 신문의 3.4%보다 훨씬 높았고, 고강도 에에서도 방송이 29.4%로 신문의 12.1% 보다 높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방송보도가 신문기사 보다 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매체별 기사의 방향 분석

<Table 4> News positioning by media type

Media type		News positioning	News positioning			Total
			Positive	Median	Negative	
TV	Freq.	21	129	154	304	
	Tot %	4.4%	27.3%	64.3%		
News paper	Freq.	14	66	89	169	
	Tot %	3.0%	14.0%	18.8%	35.7%	
Total	Freq.	35	195	243	473	
	Tot %	7.4%	41.2%	51.4%	100.0%	

$\chi^2 = 27.345, df = 2, p = 0.00$

(n = 473)

매체별 기사의 방향 분석결과는 긍정적 7.4%, 중립적 41.2%, 부정적 51.4%로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방송과 신문을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면을 보면 방송이 32.6%로서 신문의 1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방송이 신문보다 더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매체별 정보원 이용형태 분석

방송의 경우 지자체 보건당국과 국립보건원, 감염자를 진료한 병원 순으로 정보원천의 이용형태를 보였는데, 신문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동일한 순의 이용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기타 정보원천을 통한 이용형태는 방송과 신문 모두 미미한 수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매체별 기사의 표현방식 분석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적 52.4%, 자극적 33.4%, 전문적 5.1%, 통계적 4.9% 순 이었고, 매체별로 보면 방송이 신문보다 혐오 적이고, 자극적인 비율이 1.3%와 2.3%, 10.4%와 23.0% 등으로 방송이 신문보다 더 높았다.

이는 방송이 신문보다 더 자극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심층적, 분석적인 기사는 아주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에게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있지만 자극적이고 혐오 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불안과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5) 매체별 기사의 성격 분석

<Table 5> News character by media type

		Media type		Total	
		TV	Newspaper		
News character	Project	Freq.	0	2	2
		Tot %	.0%	.4%	.4%
	Factual	Freq.	273	159	432
		Tot %	57.8%	33.7%	91.5%
	Analytical	Freq.	8	8	16
		Tot %	1.7%	1.7%	3.4%
	Briefing	Freq.	22	0	22
		Tot %	4.7%	.0%	4.7%
	전체	빈도	303	169	472
		전체 %	64.2%	35.8%	100.0%

$\chi^2 = 10.346$ df = 2, p = 0.01

(n = 472)

기사성격은 방송과 신문 모두 사실기사가 91.5%로서 대부분 이었고, 단신기사, 분석기사, 기획기사는 4.7%, 3.4%, 0.4%로 아주 적었다.

IV.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2000에서 2004년까지 5년 동안 방송 3사와 신문 3사에서 비브리오에 관한 보도기사를 내용분석 하여 언론의 비브리오 관련 보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기존 비브리오에 관련된 연구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균의 특성이나 방지 시스템 또는 예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비브리오에 관한 언론의 보도를 좀 더 객관적·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이러한 보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브리오 관련보도기사는 방송이 신문보다 많았고, 여름철 5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기사유형은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면은 사회면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기사는 40줄 이하로 짧았고, 전체기사 중에 23.6%는 유사보도였다. 유사보도를 긍정적인 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비브리오에 국한된 보도 보다는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은 정보를 전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기사제목에 비브리오라는 단어가 대부분 포함 되어 있고 주의보 발령, 감염자 입원치료, 감염자 사망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퇴치노력이나 예방조치 사항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비브리오는 혐오스러운 전염병으로 인식이 되어 외식업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용의 강도에서는 저강도와 고강도가 비슷했고, 방향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정보원은 지자체 보건당국, 국립보건원과 감염자의 진료병원 등의 비중이 컸다. 보도의 중심은 상대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외식관련업계의 입장을 고려하는 보도기사가 미흡했다. 기사의 표현방식은 사실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많았고, 전문적이고, 분석적이며, 심층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기사의 성격은 사실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기획이나 분석기사는 적었다.

감염자의 연령은 40대에서 60세 사이의 중장년층이 가장 많았고, 감염자의 성별은 남녀가 비슷했다. 그러나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기사의 비중이 많았다.

매체별 기사의 특성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체별 기사강도는 전반적으로 방송보도가 신문기사 보다 고강도로 나타났으며, 기사의 방향에 있어서도 방송이 신문보다 부정적인 면이 높게 분석되었다. 매체별 기사의 중심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방송보다 신문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방송이 신문보다 훨씬 높았다. 방송과 신문 모두 지자체 보건당국과 국립보건원, 감염자를 진료한 병원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사의 표현방식은 방송이 신문보다 더 자극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사의 성격에서는 신문과 방송 모

두 사실기사가 91.5%로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보도에 있어서는 방송이 23.0%이고, 신문은 77.0%로서 신문이 훨씬 많았다. 유사보도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면이 있고, 방송보다는 신문이 더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식품관련보도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근거로 보도해야 하며 흑백논리로 전개해서는 안 된다(Shin 1997).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과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정성과 균형성 그리고 객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이나 유해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언론매체의 무분별한 보도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국민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식품문제를 담보로 한 보도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도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어 가는지,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론과 결과는 어떠한지, 시사점과 향후과제는 무엇인지 등 추적보도와 탐사보도의 비중도 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의 차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익을 외치고, 국민의 알권리를 외치는 만큼 상대적 반작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확대해석, 불안감 조성, 불신폭조 조장, 일방의 주장만 인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브리오에 관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내용분석한 것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이미 방송된 기사의 내용을 수집하고, 신문에 실린 내용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내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둘째, TV방송과 신문으로 한정 해 본 연구가 언론매체의 전부를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언론에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정보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과제로 본 연구는 비브리오 하나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광우병, 조류독감 등 비브리오 못지않게 식품업계와 외식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과 전염병에 대한 사례와 이에 대한 관련업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며 또한 언론의 표현 방법도 연구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국립보건원 전염병 정보망 <http://dis.cdc.go.kr>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find.joins.com>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정보망 전염병 통계자료. available from http://dis.cdc.go.kr/statistics/Statistics_Year_Death.asp. Accessed August 20, 2004.
 한국생선회협회. 비브리오 패혈증 상식. Available from <http://www.조디100.org>. Accessed August 20, 2004.
 KBS홈페이지 <http://news.kbs.co.kr>
 MBC홈페이지 <http://imnews.imbc.com>
 SBS홈페이지 <http://find.sbs.co.kr>
 Cha GB. 1983. Research methodology in social science. Seyoung press. pp 318-322
 Hah YW, Ahn HK, Park YW, Kim KM. 2004. The impact of negative publicity on consumer's attitude toward the firm. J. of Management, 33(1):241-272
 Kim JD, Kim NJ. 2003. An impact analysis of Korea-Japan 2002 FIFA World Cup: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J. of Tourism Science, 26(4):57-75.
 Kim SS, Lee HM, Lee JB. 2003. Molecular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vibrio parahaemolyticus as recently wilde-spreaded in Korea. Korean J. Biotechnol. Bioeng.,18(6):522-528.
 Kim YM, Lee MS, Jang DS. 1986. The Storage Temperature Effect on Vibrio parahaemolyticus in Fish Homogenates. Kor. Fisheries Soc. 19(2): 136-140.
 Kim YM. 1993. Contamination of shellfish with vibrio vulnificus the present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Korea J. of Food Hygiene, 8(2):269-278.
 Koh YC. 1992. A study on the roles of local media in local administrative PR. Doctoral dissertation. Choongang University. p 110.
 Lee CA. 1991. A study on bad news in the Korean press. Master degree thesis. Ehwa University. pp 38-43.
 Lee TS. 1999. Content analysis of news on hotel public relations. Master degree thesis. Keimyung Univesity. pp 30-31.
 Oh IK. 2000. Content analysis: Application to tourism research. J. of Tourism Science, 24(1):317-322.
 Oh IK, Kim MK. 2000. Analysis of daily newspapers' travel information types. Korean J. of Tourism Research. 15(1):194-211.
 Oh, YH, Park YI, Kim MJ, Cha MS. 1999. The virulence factor of vibrio spp. J. Bacteriology and Virology. 34(2):125-136.
 Shin KS. 1997. Content analysis on current media reporting cases involving food hazard. Kor Sco. Food Nutr. 0(0): 25-53.